

창 4:9-15 여태 성경에는 네 사람만 등장했습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가인과 아벨 모두 넷입니다. 그러면 퍼뜩 의심이 듭니다. 4:14 살인자 가인이 누군가에게 보복당할 걸 겁내는데, 누구니까? 게다가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습니까? 답: 창 1:28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신 하나님 축복과 명령대로, 첫 부부는 계속 자녀를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성경은 족보책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보복당할 걸 두려워한 사람들은, 원수값을 권리가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아내도 친 자매거나 조카중 하나였을 겁니다. 인류가 유전적으로 순전할 때라, 근친 결혼의 부작용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인류역사 초유의 살인사건을 다루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에게 너무 soft 하시단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두둔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살인자를 싸고도는 알쏭달쏭한 하나님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분명 가인의 살인은, 용서받을 여지가 없는 만행입니다. 동생을 단지 질투 때문에 죽이고도 뻔뻔하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런 가인보다, 그런 가인을 두둔한 하나님 태도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창 4:9-15 함께 읽겠습니다.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기도)

이 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니 만큼, 시범 case 로라도 사정 없이 단호히 다뤄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읽다보면, "살인자를 싸고도는" 참 알쏭달쏭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복 살해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15 절, 전혀 엉뚱하게 말하십니다. "가인아, 전혀 걱정할 것 없다! 너를 만나는 자들이 절대 너를 죽이려 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생명 보호의 '표' 즉 '가인의 표'를 네게 주리니, 이걸 보고도 널 죽이는 자는, 그 벌을 일곱 배나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살인자를 내쫓고, 살인자가 경작할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지은 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인은 "무겁다" 호소하고, 그 호소에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징계대신, 오히려 생명을 보호할 특별한 은혜의 "표"를 주십니다. 솔직히 그런 하나님에 대해 저만 불편하게 느낍니까? 제임스 바란 구약학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정말 모두 다 선택했는가?"란 아주 도발적인 글을 썼습니다. "첫날 빛을 창조하기 전의 세계를 성경은 놀랍게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다 선택하다는, 재래의 기독교적 신념은 따라서 충분히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필립 안시가 자주 던지는 질문, "하나님은 공정한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오늘도 우리가 현실에서 또 던지게 되는 질문 아닙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저지른 수많은 폭력과 살륙, 그 종합세트인 전쟁이 오늘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도 많은 군인이 죽었다지만, 스무배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복해 죽였습니다.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민가와 학교, 심지어 병원까지 무차별 폭격합니다. 하마스보다 훨씬 많은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에게 당한 이상으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벨같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무고한 살륙을 저지르는 가인같은 자들을, 그냥 두고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가인 이야기에 등장한 하나님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세들을 바로 교육하고 이 땅의 기틀을 바로 잡으려면, 가인같은 역사의 독버섯은 두둔하고 감쌀게 아니라, 본보기로라도 정의롭게 심판해서 오고오는 세대에게 엄한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게 세상 상식이고 도덕적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어찌자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두고두고 못된 분이 될 게 뻔한, 저 살인자 가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엄단은 커녕 내버려두고, 두둔까지 하시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혹시 하나님이 변덕스런 분이 아닐까요? 전혀 종잡을 수 없이, 언제는 서슬 퍼렇게 심판하고 준엄하다 못해 가혹하다 싶다가, 언제 그랬냐 싶게 도덕적 기준도 없이 맹탕으로 돌아서는, 정말 알 수 없는 "변덕쟁이"십니까? 그도 아니면 가인이란 존재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뭔가가 있더라도 한 겁니까?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가인의 표"가 뭔지 알려고 매달려 왔습니다.

인디언들은 얼굴이나 신체에 색칠을 하거나 문신을 해서 '부족 표'를 했습니다. 것처럼 하나님도 가인에게 그런 "부족 표"를 해 줘서, 다른 부족이 살해하지 못하게 가인을 지켜 주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문신을 받았거나, 중세시대에는 가인 이마에 뿔이 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뿔달린 가인의 조각이나 그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험상궂은 칼자국이 얼굴에 났든지, 온 몸에 용 문신한 사람 만나 보십시오.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곁에 드러난 그런 유치한 표가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그런 표가 있습니다. 헤르만 헷세가 소설 데미안에서 상상력을 동원한 것처럼, 살인, 강간, 약탈을 일삼는 악한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당당하게 잘 사는 게, 특별한 가인의 표가 있어서 누구도 감히 도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 근현대사에도 군사반란을 일으킨 독제자들이,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카리스마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얼핏보기에는 헤세가 해석한 '가인의 표'가, 한국인들 경험치에는 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헛다리 짚은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괴팍하고 변덕스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인에게 그런 신체적 표를

줬다든지, 대인관계의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타인들이 알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안 밝히지만, 혐오감 주거나 카리스마 있는 표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건강하고 균형있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은혜의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생명을 기어이 지키시겠다는 표입니다.

창세기 1 장 천지창조로 시작해 12 장 아브라함을 불러 세상에서 불러낸 얘기까지 잘 보시면, 가인 얘기가 단지 창세기 4 장에만 나온 단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천지창조부터 계속 반복된 하나님 이야기의 일관된 주제는, 사실 가인 얘기 주제와 같습니다. 타락한 첫 사람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으신 게 3 장입니다. 그러나 쫓아낸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도리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부정한 짐승을 정한 짐승과 함께 구원하십니다. 셈과 야벳과 함께 아버지 노아의 치욕을 드러낸 패륜아 함도 구원하십니다. 인간 상식과 도덕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꼴보기 싫은 것들 싹쓸이 하신 게 아닙니다.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은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 상식과는 달리 엄벌하는 대신 단지 그들을 흠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땅에 퍼져 번성하게 축복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태도는 인간 상식과 도덕적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그 실마리는 4: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말하자면, 가인이 태어난 게 단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결과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와 입을 통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가인의 출생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가인같은 살인자 생명도, 절대 잘못 태어난 독버섯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셔야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뜻이 계셔 세상에 보내신, 그래서 살인자가 난 것도 하나님 창조의 한 결과란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인을 이 땅에 내신, 참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에게 물러터진 하나님의 태도가 조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가인 생명의 뿌리고, 참 아버지이면 왜 상식을 뛰어넘고 윤리도덕을 초월하는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가인같은 살인자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친히 내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따라서 '가인의 표가 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맥락 속에서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가인의 생명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인에게 새겨진 겁니다. 살인자 자식을 가슴에 부둥켜안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의 태도"인 겁니다.

생명을 준 아버지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식 생명을 무조건 지키려는 겁니다. 동료 군인을 다섯이나 살해하고 대치하던 임병장이 아버지에게, "엄청난 짓을 저질렀으니 나가봐야 사형아니냐!" 그럴 때 아버지가 "그래 네 말 맞다.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 죽어야 한다!" 그러고 포기하던가요? 아버지 마음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가인에게 생명 보호의 표를 주신 가인의 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자식들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건지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너나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입니다. 인간 경험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무조건 지키고 보호하려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실 수가 없는 우리 참 아버지입니다.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너나 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아벨도 가인도, 건강한 사람도 불치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당하지 않으려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가슴에 화인처럼 이 은혜의 표, 가인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또 여기 앉아 감히 하나님 구원의 말씀까지 듣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때문입니다. 세상은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을 선언합니다. 살육 위협으로 가득 찬, 각박하기 짝이 없는 양육강식 투쟁의 장입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 생명을 앗아 가려는, 살기 등등한 복수자들로 가득한 게, 바로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그 배후에서 저 고소자 사단이 벼 까불듯 지금도 우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면서 우리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 날 지으셨고, 친히 내 생명을 지켜줄 표까지 주기 원하시는데, 그 표를 가진 한 감히 누구도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살육의 현장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존재 속에 뚜렷이 박힌 이 표가 바로, 아침 이슬같은 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 준 힘이고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표는 어떤 종류의 인간 생명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우리 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표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은혜의 표입니다. 포기한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까지 가지고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모든 인류 가슴 가슴에 사랑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새겨 넣으신 바로 그 표인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표'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가인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 사랑의 표입니다. 대책 없는 우리,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 아무리 강하고 튼튼하다가도 팔십, 구십이면 아무 대책 없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이 허약한 우리, 아무리 씻어 낼래야 씻어 낼 수 없는 우리 죄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심판 밖에는 달리 더 받을 게 없는 우리, 이런 우리 가슴 속에, 그래도 살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의 불씨로 하나님이 주신 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확증된, 소망 없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이 바로 이 표입니다

인간 상식과 윤리도덕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태도에 불편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가인같은 자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거나, 가인 정도는 아니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인 뒤에 서서 은혜의 표에 감지덕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깨 너머에 서서 자기 주제를 파악치 못하면, 하나님이 가인을 대하신 태도에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동생을 쳐 죽인, 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조차 엄히 다스리는 대신, 오히려 전혀 오히려, 그 가인에게 보복 공격을 가해 올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가인의 생명을, 비록 살인자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지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증언한 게 이 '가인의 표'입니다. 데미안에 나온 "가인의 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표"를 가인이 받은 겁니다. 비록 극악무도한 큰 죄인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 생명 만큼은 지켜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 생명이 살인자 생명일찌라도,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게 성경 입장입니다. 진정한 의는 자기의의를 포기하는 데서 이뤄진다는 게 하나님의 논리요, 성경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건 자기의의를 포기하고라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을 오히려 죽음의 보복으로부터 방어해 주셨습니다. 그 분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